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20일 (음력 2월 14일) 수요일

전남지역 男, 폐암 발병·사망을 전국 1위

회순전남대학교병원 암센터 · 광주 · 전남암등록본부

광주 · 전남 암환자 1만6404명...생존율 각각 72.9% · 65.5%

광주 서구 · 담양 · 곡성 · 광양 발병 낮아...흡연 · 고령화 원인

광주 · 전남지역 암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남성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폐암이 3년 연속 1위,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고령화가 원인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회순전남대학교병원 암센터와 광주 · 전남암등록본부가 분석한 '1999년 ~2016년 광주 · 전남 암발생률 및 암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

주 · 전남지역 암환자는 1만6404명으로 지난 2015년 1만5790명보다 614명 증가했다. 암환자 발생률은 광주의 경우 3년 연속 전남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분수대에서 물장구 치는 어린이들

전국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인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광주가 5783명(남 2949명 · 여 2834명)이며 전남은 총 1만 621명(남 5879명 · 여 4742명)이다.

특히 전남 남성의 경우 폐암 발생률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폐암 조사사망률도 10만명당 52.8명으로 전국 1위이다.

암종류별 발생빈도는 광주의 경우 남자는 위암 · 폐암 · 대장암 · 간암 · 전립선암, 전남은 폐암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전립선암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광주 · 전남 모두 갑상선암 · 유방암 · 위암 · 대장암 · 폐암 순이다.

암발생 환자 중 생존자는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2016년 말까지 광주 4만6412명, 전남 7만6141명 등 총 12만2553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2016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도 광주 72.9%, 전남 65.5%이다.

지역별 암발생률(2016년 기준)은 광주의 경우 서구, 전남은 담양 · 곡성 · 광양 순으로 낮았다. 암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광 · 화순 · 장흥 순이다.

회순전남대학교병원 암센터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폐암 발병과 사망률이 높게 분석됐다"며 "이는 높은 흡연율과 노령인구의 증가가 원인인 만큼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금연사업 강화와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가폐암검진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을 진단 받은 뒤 치료와 이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소아암생존자 지지센터, 지역의 암생존자들을 위한 통합지지센터의 활성화와 암환자 직장복귀 지원, 소아암환자 학교복귀 지원프로그램 등 암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실있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선택의 기로

정동영 민주당 대표는 18일 선거제도 개혁이 막바지에 왔다며 '신속처리절차(자정에 1보 전에 왔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토착왜구 세력의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비판했다. 정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기득권 양당제 구조가 온건 다당제 구조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평화당의 창당 정선으로 당은 지난 1년간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또 '선거제 개편은 의원을 위한 제도 아니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정치를 바꾸려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의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스시스



토착 왜구 세력 같아서야...



그럼 우리가 퇴치 대상이 아닌가



살고자 하면 개혁에 동참해야...

광주시 시민이 제안하고 정책 만드는 '숙의형 플랫폼' 도입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 운영

참여형 민주주의 · 행정 협치 모범 모델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숙의형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정책으로 이어가는 시민소통 광장인 온라인 플랫폼을

20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플랫폼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SNS 계정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참여형 민주주의로 시민 누구나 제안부터 공감, 토론, 심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제안부터 실행까지는 시민들 공감 수와

토론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제도를 비롯해 행정 개선사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을 했을 때 시민 공감 수가 30일 동안 100명이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러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으로 추진한다.

김용승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소통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행정 협치 모델로 정착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2018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서은홍 기자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촉·임대수탁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촉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화생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